LG화학, 순이익 1조원 달성 “잔치”

매출 14조4000억원에 영업이익 1조4000억원 ... 연결매출은 16조원

LG화학이 2008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며 기쁨을 토했다.

LG화학은 2008년 매출액이 14조4878억원, 영업이익 1조4296억원, 경상이익 1조3238억원, 순이익 1조26억원을 기록했다고 1월30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34.2%, 영업이익은 87.2%, 경상이익은 61.0%, 순이익은 46.1% 증가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렸으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자회사와 해외법인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조776억원, 영업이익은 1조4256억원, 경상이익은 1조2789억원, 순이익은 1조26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4/4분기 매출은 3조2369억원, 영업이익은 1226억원, 경상이익은 677억원, 순이익은 61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경영실적이 개선된 주요 배경으로 석유화학부문의 합작효과와 전지사업의 매출 및 이익 대폭 개선, 광학·전자소재사업의 탄탄한 수익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스피드경영>으로 강한 체질을 갖추게 된 것도 최대이익 달성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반석 부회장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2009년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비용(Cost)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제품을 싸게 생산함으로써 더욱 낮은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보적인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신사업분야의 기술을 확보해 경쟁사와 차별화한 가치 창출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2009년 전략의 실행속도와 조직문화 변화속도를 높이는 <스피드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핵심사업 강화는 물론 고객가치 혁신, 조직역량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집중 실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30>